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1051
전화(967)8133

(每月 中旬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8133사무실

'87년도 제18차 定期總會召集

3月31日(火) 午後1時로

◎… 協會는 제18차 定期總會 준비를 위한 今年度 제1차 理事會를 지난 2月19日 召集코 하자 없는 상정자료 준비와 發展的인 協會活性化 對策을 모색하는데 부심한바 있다. …◎

87年 第1次 理事會에서 決定 (2월19일)

協會活性化 対策 모색

協會基本운영 方向의 轉機마련에 부심

이날 理事會는 現會長團의 앞으로 남은 任期 1년동안에 어떻게 하던지 協會基本운영방향에 대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 보자는데 초점을 모으고 長時間 숙의한바 있으나 당장 解決策을 염출치 못하고 會長團에 一定한 時限을 두고 委任處理하도록 意見을 모았다.

議案 토의에 들어가 執行部에서 준비한 案件에 따라 축차적으로 審議한 結論은 다음과 같다.

○대폭引上 조정된 임대保證金 調達方案 및 共販場 活性化를 爲한 資金誘致問題에 對하여는… 2개 方案을 놓고 甲論乙박을 거듭하였으나 早期解決이 難望하여 名譽會長을 포함한 會長團에 그처리 방법을 總會時까지 委任하기로 하였다。

◇定期總會 召集日에 대해서는 年例에 따라 3月中 名地方 장일을 피한 3月末日 오후1시로 決定하고 이에 따른 준비는 집행부에 委任하였다(별도告示참조)

◇總會준비에 따른 事業計劃書에 대한 基本方針으로는……

▲첫째 : 자역별로 展望좋은 品種을 선별하여 과잉생산을 豫防하도록 계속 啓導한다。

▲둘째 : 系統出荷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共生共存하는 組織意識을 高揚한다。

▲세째 : 共販場 活性化를 위한 資金誘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네째 : 會員의 權益伸張을 위한 生藥材取扱 한계를 確立하는 措置를 계속 講究한다。

▲다섯째 : 지역별 新規會員을 대폭 擴充하여 會勢伸張 및 內實化를 期한다。

▲여섯째 : 對外 生藥分野와의 情報交流를 계속하며 신규情報를 전파 生産會員 技術向上에 기여토록 한다。

▲일곱째 : 地域別로 自體生産技術敎育實施를 장려하여 會員의 資質向上을 도모한다。

▲여덟째 : 生藥分野 對內外 정보를 積極 수집하여 內實있는 機關紙를 계속 전파한다. 등……

8개항으로 豫定하고 이에 대한 細部施行項目은 執行部에 其策定을 委任하기로 하였다。

이어 87年度 豫算編成案 審議에 들어가 去年度보다 약25%가 증가한 4천4십만으로 책정하고 中央共販場 豫算案은 작년과 같이 동결코 都合 7천2백4십만으로 確定지어 總會에 上程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번 豫算案에는 종래에 없던 職員 복리적금을 小額이나마 策定하였다는 것이 심히 다행한 일이라고 할만하다。

其外 86년도중 新規承認 및 解任 分所長(30·31)에 대한 집행부 案을 일괄 檢討 인준함과 동시 新任員 1명을 이의없이 영입 議決하였다。

이로서 25명의 任員TO中 20명의 任員을 充員하게 되었으며 殘餘任員에 대하여는 理事團에서 계속物色 추천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이날 參席한 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長 : 朴萬鍾 ·副會長 : 金東均(제주지부장) 朴贊永 ·전무 : 鄭尙鈺 ·理事 : 裵命哲(명예회장) 吳寬秀(代副支部長참석·경기) 宋寅彔(강원도支部長) 李和翼(전북지부장) 安承官(경북지부장) 朴吉夫(부산시 지부장) 李玉鎔(공판장장) 金龍漢(新) ·監事 : 류복규(영주시 소장) 박영입(철원군 소장)

※委任 ·理事 : 鄭東五(부산) 이종엽(서울) 이종철(충북지부장) 문대규(충남지부장) 김정만(경남지부장) 최종대(전남지부장) 정영준(대구시지부장) 황인구(원주시소장)。

農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바다의 건강식품「미역」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을뿐만 아니라 동、남해안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서 흐르고 있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4백여종의 해조류가 생산되고 있다。

그중에서 식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50여종이나 되며、그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미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들은 비교적 해조류를 먹지 않았으나 동양인들은 오래전부터 해조류를 식용으로 삼아 왔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 이미 미역과 다시마에 관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조류를 먹어온 것이 확실시 된다。

미역은 먼 옛날부터 우리들이 식탁에 자주올라 매우 친근한 전통식품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여왔는데 이는 유구한 경험으로 보아 여러가지 좋은점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역국이 산모에게 좋은 점을 몇가지 생각해보면 첫째、산모는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미역에는 점성다당류(粘性多糖類)가 많아 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을 자극하여 장의 운동을 활발히 해주고 배변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미역에는 산모에게 필수적인 무기질과 양질의 단백질이 많아 영양섭취에 크게 도움이 되며 세째로는 젖을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수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점이다。

이렇게 몸에 좋고 영양가 높은 미역은 되도록 끓여먹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국으로 끓이면 한번에 미역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동시에 국물까지 먹음으로써 용출된 수용성 영양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미역중 말리지 않고 염장해서 판매하는 양이 많아졌다。 미역을 고를때 질이 좋은 미역을 줄기가 적고 쉬지 않았어야 하며 잎이 두꺼우면서 국을 끓였을때 뻣뻣하지 않고 부들부들해야 한다。 또 색은 검은 것이 좋다。

미역은 생산기에는 생체로、비생산기에는 염분을 가미한 염장미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쉽게 구할수 있고 값이 싼 식품일수록 우리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족의 건강과 부존자원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짜임새 있는 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역의 성분은 철분、칼슘、단백질과 탄수화물 및 각종 비타민등 양질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성인병인 고혈압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비만증의 해소、강장작용등 효과적인 건강식품으로 널리 꼽히고 있다。

최근 해조류의 영양학적 연구를 계속해온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역은 암、고혈압、비만증、빈혈등에 약리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심장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과 니코틴 제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그 자원량이 풍부해진 미역은 언제 어디서나 싼값으로 구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리법도 개발 보급되어 가정주부가 누구나 부담없이 식탁에 올려 놓을수 있는 우수식품임이 입증되고 있다。

미역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영양대비표에서 본바와 같이 아이신은 시금치나 양배추에 비하여 2배나 되며 칼슘은 20배 이상이나 된다。 그밖에 미역은 신체발육、빈혈예방、기억력 증진에 특히 좋으며 여성의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있다。

不實한 계약栽培 止揚해야

近年에 와서 法的또는行政 뒷받침이 없는 不實한 계약栽培등이 성행하는 경향이 있고、이로 因한 相互피해와 不信助長으로 向次 物議를 야기시킬 우려가 多分하므로 앞으로 協會산하 各級分事務所는 公認性이 없는 계약栽培는 一切 삼가해 주기를 當付하고 있다。

原則的으로 農作物 계약栽培는 農林水産部 告示83-6호(83、3、22)에 의거 施行하기로 되어 있으나 一般的인 理解不足과 까다로움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그렇다고 해서 收支타산만을 고려한 私私로운 계약행위는 當事者間은 勿論 關聯周邊에 相當한 被害를 주게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農林水産 당국에서도 앞으로 生産農家에게 被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啓導活動을 철저히 하라는 指示를 本會에 示達하고 산하 會員들에게 널리 周知시킬 것을 強調하고 있다。

> 한짝의 물건이라도 系統出荷하여 組織活性化에 도움을 주자

기업能力맞춰 賃金인상요구

李노동、勞組간부에

李憲琦노동부장관은 17일『노사간 금년도 임금인상교섭에 있어 산별노조가 일률적으로 인상률을 제시하는 방법은 자제토록하고 기업단위별로 해당기업의 지불능력에 맞게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임금인상액을 결정、요구해줄것』을 당부했다。

李장관은 이날 상오 팔레스호텔에서 金東仁한국노총위원장및 16개산별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에 호황을 누린 업종에서는 그만큼의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으로 배분해야겠지만 이같은 전반적인 호황분위기에 휩쓸려 건설·광산등 지난해에 호황의 혜택을 입지않은 일부업종에까지 지나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노사분규를 자초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第18次 定期總會召集公告

▲根據＝協會定款 第10·11條에 의거 1987년도 第18次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召集公告함。

1、總會日時
1987년 3월 31일(火) 오후1시

2、總會場所
東大門區 제기동 한약商街빌딩
第一生命 會議室(協會本部 옆)

3、參加對象
①協會理事 및 監事
②직할市 道支部長 및 共販場長
③市·郡·區 事務所長 및 共販場長
④右記 대상자로부터 權限을 委任받아 委任狀을 소지한 中央會員

4、議案
①1986년도 收支決算 報告 承認
②1987년도 事業計劃書 〃
③1987년도 收支豫算 編成 〃
④任員改選(新規理事 充員 및 監事改選)
⑤其他 行政事項

1987년 3월 20일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